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태 성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線의 조형성을 모티브로 한 도자소품

제작 연구

-회전체의 선을 중심으로-

2015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공예학과

배운주

線의 조형성을 모티브로 한 도자소품

제작 연구

-회전체의 선을 중심으로-

박태성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공예학과

배윤주

인 준 서

배윤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조형 언어로서의 線은 적은 노력으로 최대한의 의미와 기능을 담아내는 잠재력을 지닌 요소로서 사물의 형태를 전달해 주는 매개체로 그 기능과 의미를 가지며, 인간내면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시각적인 요소로서도 제일 널리 사용하는 조형행위의 기초였다. 선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술가들의 심적 예술 세계를 표현하는 기초언어 및 수단으로 사용되어 지며 오늘날 예술의 조형요소에 있어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본 연구에서는 선이 가지는 의미와 반복된 선이 가지는 예술적 조형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 연구자의 작품연구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선의 조형성을 모티브로 한 도자소품 제작은 아이템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공예로서의 소품적 성격을 지닌 작품을 연구 제작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선은 절제된 형태로 연구자의 내적 심상을 반영하는 매개체로 표현되어진다. 선을 그리는 1차적인 행위로 시작해 내재된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쓰이며 의식과 무의식의 사이에서 때로는 절제되고 때로는 원형 덩어리를 과감히 감싸고 면을 나누는 반복된 선의 형태로 표현되어진다. 절제된 선을 표면에 반복적으로 긁는 행위를 통해 내적심상을 표현한 것에 반하여 자유로운 곡선의 중첩과 유동적인 선의 아름다움을 가진 꽃을 조합하여 절제 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선을 함께 표현하였다. 이는 회전체의 원형에서 절제된 선과 자유분방한 곡선을 가진 꽃선의 조합으로 조형성의 긴장감을 더해 준다. 선과 함께 장미꽃을 조형적 요소로 선택한 것은 풍부한 꽃잎으로 자유로운 곡선의 반복된 중첩이 가능하고, 연구자의 내적 심상을 반영해 줄 수 있는 다양한 꽃말을 가졌기 때문이다.

색감에 있어 절제된 선을 잘 표현하기 위해 백자와 청화안료를 주된 재료로 사용하였고 장식적 요소로 수금 안료를 사용하였다. 선이 그어질 기물의 형태에 있어서는 하나의 점으로 시작해 직선과 곡선이 두루 공존할 수 있는 회전체의 성격을 가

진 원형의 형태를 제작하였으며 형을 만드는데 있어 선을 긋는 행위가 용이 하기 위해 물레 성형과 석고 틀 제작을 시도 하였다. 도자소품의 제작 범위에 있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그릇에서부터 캔들, 조명, 화병, 액자 등 차후 생활에 쓰임과 디자인에 있어 다양하게 시도 할 수 있도록 시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의 제목에 있어서는 연구자의 내적심상을 반영해 인연(人煙)에 대한 스토리 텔링(story telling)으로 전개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연구배경과 목적 및 연구방법	1
-----------------------	---

II. 본 론

1. 선의 개념과 조형적 특징.....	2
2. 반복된 행위의 특징과 의미.....	4
3. 꽃이 가진 선의 조형적 의미.....	5
4. 시작품 제작.....	6

III. 결 론.....	27
---------------	----

참고문헌

ABSTRACT

시작품 목차

- <작품1> 시간 I
- <작품2> 시간 II
- <작품3> 나눔 I
- <작품4> 교감 I
- <작품5> 교감 II
- <작품6> 너와 나 I
- <작품7> 너와 나 II
- <작품8> 고백 I
- <작품9> 미소
- <작품10> 청혼
- <작품11> 동행 I
- <작품12> 동행 II
- <작품13> Time for love
- <작품14> 고백 II
- <작품15> New Moon -1
- <작품16> the special day I
- <작품17> 백자 심플라인 브런치 세트
- <작품18> New Moon -2

I. 서론

선은 적은 힘으로 짧은 시간에 강렬한 의미를 전달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조형언어로서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조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을 굿는데 있어 굽기와 속도 조절에 변화를 달리한 반복된 행위를 통해 표현되는 선의 조형성과 풍부한 꽃잎의 자유로운 선의 중첩과의 조형적 조합을 통해 도자 제품 디자인을 연구제작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조형 언어로서의 선의개념과 반복된 행위의 조형적 특징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꽃이 가진 선의 조형적 의미를 부여하여 자유로운 곡선을 가진 꽃 장식을 통해 원형의 형태를 가진 캔들, 그릇, 화병, 조명등 제작에 조형성을 더하고자한다.

원형의 형태에서 점에서 직선, 그리고 곡선으로 이어지는 회전 감을 느낄 수 있는 선을 굿기 위해 그릇의 경우 소성 시 원형 변형이 적은 몰레성형기법을 이용하여 제작하고, 장식품적인 요소가 큰 조명등과 캔들 홀더는 내부 공간을 적절히 이용하여 조명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형몰레를 이용한 회전체 형태를 드레인 슬립캐스팅 하여 제작한다.

꽃 작업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도판성형을 통하여 펀칭 성형을 하고 생화의 관찰을 통해 꽃의 개화와 시듦에 있어 꽃 선의 과 꽃잎 개수의 변화에 주목 하여 작업에 응용하였다.

II. 본론

1. 선의 개념과 조형적 의미

1) 선의 개념

선은 사전상의 의미로는 ‘그어놓은 금이나 줄’ 이라 하고, 미술에서는 ‘물체와 물체를 경계 짓는 부분’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개념은 보이지 않는 본질로서 점이 움직여 나간 흔적이며 이동경로 이다.¹⁾

선의 종류에는 유동적인 흐름이 없이 곧 바로 뻗어나가는 직선과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게 되어 점의 진행방향이 늘 변하여 발생하는 곡선이 있다. 직선은 한 방향으로 바르게 나아가는 성질로 인하여 단호함과, 명쾌함, 간결성, 긴장감, 속도감이 들며 이러한 성질로 인해 복잡한 형태들을 가장 단순화된 모습으로 표현해 낼 수 있다. 때로는 굵기에 따라 굵은 선은 안정감과 진중함을 느낄 수 있고 가는 선은 예민하고 날카로우며 끊어질듯 한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들게 한다. 반면 곡선은 직선이 가지고 있는 완고함과 긴장감, 명쾌함과는 달리 더욱 감정적이며 자연적이고, 관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자유분방한 내적 심상을 전달하는데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원형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적인 곡선의 형태로 부드러움과 자유분방함으로 표현되어 지며 회전하는 원형의 특성상 점에서 시작되어 직선으로 나아가 시작된 점으로 돌아와 형성되는 원형의 곡선은 간결하고 명쾌한 느낌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1) Wassily Kandinsky 지, 차봉희 역. [칸딘스키 예술론II : 점.선.면 회화적인 요소의 분석을 위하여], 열화당, 2000, P.47.

2) 선의 조형적 특징

조형적인 선은 생성 과정에 따라 1차적인 설명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내재된 심리의 암시적 설명이 포함된 절제되거나 혹은 자유분방한 선으로 표현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선은 그 자체만으로 시각적인 표현전달 수단으로의 독립적인 기능을 하며 여기에 방향, 색깔, 질감, 굵기, 속도 등 사용자의 예술적 의도가 들어가게 되면 조형성을 가진 선으로 재탄생 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지는 선은 선 하나하나에 감정을 가지게 되며 작가의 정서적 특징이 표출되어지는 예술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선의 조형적 특징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원형의 회전체를 위아래 순서 없이 반복된 선긋기를 통해 원형의 곡선으로 채워가며 안정감을 주었고 선의 굵기와 안료의 농도를 달리해 조형의 변화를 주었다. 또한 선에 의한 회전체의 면 분할을 통해 표면 공간에 변화와 긴장감을 부여하고자 하였으며, 적절한 배치와 굵기, 농도의 조절로 인해 리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선 긋기를 통해 연구자는 1차적으로 무의식 적으로 선 긋는 자체에 유희를 느끼며 2차적으로 조형언어인 선의 조형적 특징을 통해 선을 그을 때의 연구자의 내적 감정이 절제와 집착 적인 선 긋기의 반복의 행위로 적절히 조합 되어 시각적인 조형물로 완성되도록 하였다.

2. 반복된 행위의 특징과 의미

‘반복’이란 같은 일을 되풀이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행동한다는 것인데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저서인 <차이와 반복>에서 “반복은 일반적이기 보다는 특수하고 특별하다”라고 하였다. 이는 일반성에 대립하는 어떤 독특성, 특수성에 대립하는 어떤 보편성, 평범한 것에 대립하는 어떤 특이한 것, 변이에 대립하는 어떤 순간성, 항구성에 대립하는 어떤 영원성을 동시에 표현한다. 어떠한 법칙보다 훨씬 심층적이며 예술적인 어떤 실재를 위해 명목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에 반한다. 반복은 언제나 어떤 독특성을 드러낸다.²⁾

본 연구에서는 회전체의 성질을 가진 원형의 형태에 선을 반복하여 긋는 행위를 통해 반복된 행위에서 오는 익숙함과 평범함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었으며 유희를 느끼고자 하였다.

더불어 반복의 행위에서 표현되는 형상이 단순함과 지루함이 아닌 반복된 행위만이 가질 수 있는 능숙함과 기교로 절도 있는 선의 조형을 살리고자 하였으며 그로 인해 표현되는 선은 영원성과 특별함을 지니게 된다. 반복되는 선의 형태는 꽃이 가진 자유로운 곡선의 중첩에서도 보여 지며 계획 되지 않은 곡선의 반복은 리듬감과 생동감을 주며 선의 자유분방한 조형성을 보여준다.

2) 질 들뢰즈, 김상환 역. 「차이와 반복」, 민음사, 2004, p.29.

질 들뢰즈(Gilles Deleuze) : 프랑스 철학자. 소르본대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69년 박사학위논문 《차이와 반복》을 발표했다. 그는 철학, 문학, 심리학, 영화 등 다양한 장르에 관심을 보였고, 마르크스주의, 정신분석학, 구조주의 등을 폭넓게 섭렵했다. 《의미의 논리》, 《차이와 반복》, 《안티 오이디푸스》, 《카프카》, 《푸코》 등의 저서를 냈다.

3. 꽃이 가진 선의 조형적 의미

자연은 인간에게 있어 편안한 안식처로 새 생명의 활력을 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며 우리 주변에서 관찰과 동경의 대상이 되어오며 예술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어 왔다.

연구자의 꽃에 대한 조형적 표현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것으로 자유분방한 생명력으로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내면의 세계를 풍요롭게 하는데 있다. 꽃의 조형성은 절제된 선에 반하는 유동적인 여러 개의 아름다운 곡선의 중첩이라고 말할 수 있다. 회전체 위에 올려진 선이 절제와 집착의 반복되어진 계획된 선이라고 한다면 꽃 봉우리를 이루는 한 겹 한 겹의 꽃잎의 유동적인 외곽선은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고 계획되어 지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운 조형적인 선이다.

연구자는 생명을 가진 자연물의 아름다움과 자유분방을 그대로 표현 해 내기위해 생화의 개화와 시늉을 오랫동안 반복 관찰 하였으며 꽃잎 선의 변화로 나타나는 꽃이 가진 선의 조형성을 연구자의 작품에 장식적 요소로 표현하였다.

꽃은 갓 피기 시작한 여린 생명력을 가진 봉우리에서부터 풍부한 꽃잎으로 활짝 만개한 것까지 다양하게 표현하여 자연물의 생명력과 심미성을 시각화 하였고, 중첩된 꽃잎의 리듬감 있는 자유분방함 속에 나름대로의 질서를 지키며 중첩된 선의 조형성을 표현하였다.

4. 시작품 제작

① 성형

점에서 직선, 직선에서 곡선으로 이어지는 선의 속도감과 방향성, 정갈함을 드러낼 수 있는 선을 긋기 위해 회전체의 성질을 가진 원형 형태의 반구와 원기둥, 그릇을 성형하였다.

원형의 성형 작업에 있어서는 원형의 회전체에서 같은 수평 상에 그어지는 선의 굵기를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 원형의 휘어짐이 덜한 물레기법과 석고작업을 병행하였고 석고 역시 제형물레를 이용해 석고 원형을 제작하였다.

물레작업은 선긋기 작업이 매끄럽게 진행되기 위해 물레 성형을 한 후 건조과정에서 1차 굵깎기를 한 후 물 스펀지로 굵 깎은 자국을 없애준 후 초벌 후 다시 사포를 이용해 스펀지 자국을 없애주어 기물의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어 주었다.

형태에서 선의 요철로 디자인 된 그릇과 기의 경우 일반성형보다 조금 두툼하게 굵깎기를 하고 물 스펀지 과정까지 마친 후 날카롭게 다듬어진 크고 작은 속 파기용 도구를 이용하여 기물 벽에 크고 작은 선을 깎아 내어 요철을 만들어주었다.

소지는 강도가 뛰어나고 백색도가 좋은 슈퍼 본(super-bone) 소지를 사용하였다.

원형의 반구와 기둥위에 올려진 장미 장식들은 점토를 얇게 밀어 두께 3mm 내외의 도판을 만들어 정형화된 작은 원형 틀로 도판을 눌러 찍어내어 1차 제작을 하였으며, 작은 원형도판들을 다수 제작한 뒤에 꽃잎 성형을 하는 동안 미리 만들어 놓은 원형 도판들이 건조되지 않도록 젖은 수건을 덮는 등 주의를 기울였다.

2차로 얇은 꽃잎 제작은 위와 아래로 향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위를 향하는 부분의 꽃잎들은 꽃잎이 서로 붙지 않도록 공간의 여유를 두고 아래로 향하는 꽃잎의 부분은 겹겹이 쌓여져 꽃의 무게중심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었다.

특히 꽃잎의 두 번째 잎부터는 조금씩 간격을 띄워 붙이되 꽃 봉우리가 커질수록 그 간격을 크게 만들어 주며 가장 먼저 개화하여 꽃 봉우리 전체를 감싸는 바깥 꽃잎은 시들의 직전에 있으므로 꽃잎 가장자리 선이 확연히 아래쪽을 향하도록 젖혀준다. 그리고 나머지 안쪽의 꽃잎은 라인의 가장자리 부분을 살짝 바깥으로 젖혀

주었다.

성형된 원형의 기물위에 장미장식을 부착할 때는 건조 속도를 조절하여 붙이지 않으면 부착 틈새가 갈라지기에 장미성형 후 저장 건조가 될 수 있도록 5cm의 아이소 핑크를 자체 제작 하였으며, 얇은 잎의 습도유지와 부서짐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가 조금씩 들어가 건조가 서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힘이 있는 비닐을 이용해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구멍을 뚫어주고 씌워주었다.

꽃잎의 잎사귀는 실제 꽃잎의 잎사귀에 점토를 붙여 두툼하게 제작하여 원형을 만든 후 가압 석고 틀을 제작하여 작업하였다.

② 채색

안료는 백색도와 함께 맑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청화 안료를 사용하여 1차적인 선긋는 작업을 시행하였고, 수금 안료 작업을 통해 선의 장식을 더하였다.

청화 안료는 코발트가 주성분으로 하는 복합광물인 오수(吳須)³⁾를 사용하였다.

선 작업 시 물레 선 전용 붓을 사용하여 안료의 양을 늘려 선 하나당 적어도 4회 이상 정도의 회전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료의 뭉침으로 인한 유약의 말림을 방지하기 위해 묽은 청화 안료일 경우 10회 이하의 회전을 하게 하였다. 한 번 붓의 맺힌 안료로 여러 농담을 표현할 때에는 안료의 양이 닳을 때 까지 그려주며, 처음부터 열은 농담의 선을 표현하고자 할 때에는 쌀 뜬 물과 같이 안료가 담긴 붓의 가라앉은 안료의 뜬 물을 이용해 열은 농담을 표현했다.

일반적으로 청화안료의 비율은 분말청화와 물의 비율 3:7 에 청화 접착 액을 소량 넣어 안료의 날림을 방지하였다. 선 작업 시 더욱 깨끗한 선을 긋기 위해서는 붓의 힘 조절이 필요하며, 선의 시작점과 끝점의 붓의 자국을 최소화 하기위해 기물에서 힘 조절을 통해 서서히 붓을 이탈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선

3) 중국, 운남성 주변에서 산출되는 복합광물 안료를 오수(吳須)라 하였으며 요즘은 합성안료로 복원된 안료를 주로 사용한다.

오수: 코발트 산화물을 함유한 광물의 이름으로서 모래처럼 검고 청록을 띄고 있다. 이것을 아주 미세하게 갈아서 물에 녹여 초벌 한 기물에 문양을 그리고 위에 유약을 시유하고 구워내면 남색이 된다, 오수는 일본에서는 '고스'라고 발음한다.

을 그을 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선의 시작점과 끝점의 흔적이 2차 재벌 소성 후 지저분하게 남을 가능성이 높다.

유약은 청화유와 반 유광 백 매트, 코발트 유를 주로 사용하였다. 4)

4) 청화유: 석회석을 매용 원료로 하여 조합하는 광택과 투명성을 지닌 유약으로, 소지에 채색한 청화안료는 이 유약이 녹으면서 아름다운 남색으로 발색하게 된다.
반유광 백 매트: 백매트와 투명유를 3:7 비율로 섞어 조합 한 은은한 진주 빛의 펄 광택이 있는 흰색의 불투명 유약.



<작품1> 시간 I, 백자, 청화, 수금, 환원소성, 슬립캐스팅, 270×270×6mm, 2011

<작품1> 는 가장 기본적인 회전체의 판을 이용하여 평면 선 긋기 작업을 시도하였다. 평면 회전체의 중심에서 찰나의 순간 불규칙적인 간격으로 퍼져나가는 선들의 확장된 모습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의 확장과 리듬감을 느낄 수 있으며 반복적이고 집착적으로 회전판의 공간을 채워가는 선 긋는 행위를 통해 유희를 느끼고자 했다.

원형 회전판은 액자와 판 접시로 활용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작품2> 시간Ⅱ, 자기토, 청화, 환원소성, 슬립캐스팅, 270×270×6mm, 2011

<작품2> 는 <작품1>의 평면 회전체 위에 장미를 부착하여 회전체의 중심에 활짝 피어있는 모습으로 반듯한 선의 나열과 대비되는 자유로운 곡선의 조형성을 더하며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추구하고 연구자의 내면에 숨어있는 심미성이 표현되도록 작업하였다.

더불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작품1>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풍요로운 결실이 생겨남을 표현했다.



<작품3> 나눔, 자기토, 청화, 수금, 환원소성, 물레성형 ,225×225×50mm, 2011

<작품3> 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 풍요로움과 여유를 나눌 시간도 있음을 표현하였고, 그릇이라는 사물을 통해 음식을 나누며 정을 쌓고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 형상화 하였다.

그릇은 크고 작은 원형으로 물레성형 하였으며 그릇 안쪽에도 선 긋는 작업을 통해 음식이 담겨지지 않았을 때에도 보는 재미를 주도록 제작하였다.



<작품4> 교감 I, 자기토, 수금, 환원소성, 슬립캐스팅, 170×170×220mm, 2011

<작품4> 는 회전체 위에 자유로운 곡선의 장미를 등장시켜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관망의 대상으로부터 교감을 느끼듯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름다운 교감을 나누길 바라는 연구자의 내적 심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회전체는 슈퍼본(super-bone) 소지를 이용하여 투광성이 있게 제작 한 후 내부에 LED전구를 넣어 교감의 시간에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조명으로 활용할 수 있게 조명등으로 제작하였다.



<작품5>교감Ⅱ, 자기토, 청화, 수금, 환원소성, 슬립캐스팅, 170×170×110mm,, 2011

<작품5>는 <작품4>의 자유로운 곡선의 확장된 개념으로 장미의 가지를 등장시켜 생명력이 느껴지는 선이 되도록 하였고 반구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반듯한 회전체의 선들은 자유로운 장미의 곡선을 안정적이게 보이도록 한다. 장미의 가지는 슬립 캐스팅을 하였으며 얇은 장미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반구 회전체와 장미 가지의 건조시간을 맞추어 부착하여 소성하였다.

반구 아래 LED전구를 넣어 조명등과 오브제의 역할을 겸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작품6> 너와 나 I, 자기토, 청화, 수금, 환원소성, 물레성형, 60×60×40mm, 2011

<작품6>은 교감된 상대와 시간을 함께 나눌 때 필요한 술잔을 제작하였다.

술 한 잔의 여유로움이 주는 편안함을 굳더더기 없는 회전체의 선으로 잔을 장식하였다. 물레성형을 하였으며, 맑고 가벼운 느낌을 주기위해 굽 깎는 과정을 정교히 하여 얇게 제작하였다. 환원소성 하였으며 백금과 수금 장식을 더해 회전체의 선을 부가시켰다.



<작품7> 너와 나 II, 자기토, 청화, 수금, 물레성형, 65×65×115mm, 2011

<작품7>은 <작품6>에 이어 조금 큰 사이즈의 컵을 제작하였다. 같은 높이의 컵에 다른 높낮이와 공간을 분할하는 선 굵는 행위를 통해 닮았지만 다른 느낌의 조형적 표현을 시도하였다. 물레성형 하였으며 환원소성 후 수금장식을 더해 절제된 선을 부각시켰다.



<작품8> 고백 I, 자기토, 청화, 수금, 환원소성, 슬립캐스팅, 75×75×175mm, 2011

<작품8>은 좋은 인연 대한 소중한 고백을 할 때 분위기를 만들어 줄 캔들 홀더이다. 원기둥의 회전체를 디자인해 다양한 높이의 선긋기 작업을 용이하게 하였고 초가 놓여 질 가장자리에 불빛이 은은하게 새어 나올 수 있도록 장미 장식을 더하였다.



<작품9> 미소, 자기토, 청화, 수금, 환원소성, 슬립캐스팅, 70×70×60mm, 2011

<작품9>는 좋은 사람으로 부터의 고백을 들은 후 함께 잔잔히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는 발상에서 여러 개의 작은 회전체의 반구위에 각기 다른 색상의 선을 그어 통일성을 주고 장미 한 송이를 얹어 작은 조명등 여러 개가 켜질 때 은은하게 빛나는 오브제 표현을 시도하였다.



<작품10> 청혼, 자기토, 청화, 수금, 핀칭, 환원소성, 170×170×95mm, 2011

<작품10> 은 남녀의 좋은 인연에 대한 또 다른 시작인 단계가 청혼이라 생각하여 도자기 부케를 제작하였다. 도자기는 변치 않을 영원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장미는 상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회전체에 장미 부착 시 꽃끼리 맞닿아 얇은 꽃잎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였고 성형된 부케의 가마 소성을 위한 이동시 초벌 된 받침판을 이용하여 부케를 위에 얹어 받침판과 함께 가마소성하여 꽃잎이 부서짐을 방지하였다.



<작품11> 동행 I, 자기토, 수금, 환원소성, 물레성형, 200×200×150mm, 2011

<작품 11> 은 청혼 후 두 인연이 인생을 함께 동행 한다는 의미로 연구자의 내적 심상을 수많은 선들로 나열하였다. 기쁨을 감싸는 수많은 선 들을 긋는 작업을 통해 내적심상을 수많은 선들로 정리하며 선 긋는 행위의 반복에서 오는 선의 조형적 특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환원소성 후 수금장식을 통해 선을 부각시켰고 화병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하다.



<작품12> 동행Ⅱ, 자기토, 환원소성, 물레성형, 200×200×150mm, 2011

<작품12> 는 <작품11>의 선 긋는 행위에 대한 확장된 형태로 기벽에 선을 긋는 것이 아닌 요철을 주어 입체적인 선으로서의 조형을 시도하였다. 분출하고자 하는 내재된 심상을 요철의 선을 통해 표현했다.

더불어 동행에는 남녀의 인생의 동행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함께 동행 한다는 확장된 동행의 의미를 담았으며 화병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하다.



<작품13> Time for Love, 자기토, 환원소성, 핀칭, 슬립캐스팅, 350×350×80mm, 2012

<작품13> 은 사랑하는 마음을 받고 주는 시간에 대한 감사함과 배려의 마음을 내재한 선긋기 작업을 시도하였다. 꽃의 형상을 통해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아름다운 것이 내재되어 있어 사랑 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였고, 4개 원판의 배열이 다른 선긋기는 인간에 내재된 심상의 다양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회전체의 작은 판을 제형물레로 성형 후 사각의 모양으로 균형을 맞추었고 액자로 활용이 가능하다.



<작품14> 고백Ⅱ, 자기토, 청화, 수금, 환원소성, 물레성형, 200×200×300mm, 2012

<작품14> 는 고백이 필요하거나 대화가 필요한 날 분위기를 만들어 줄 와인 쿨러(cooler) 세트이다. 와인 쿨러, 와인 잔, 요리 접시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15> New Moon-1, 분청, 청화, 분청토, 환원소성, 400×400×460mm, 2012

<작품15> 는 말 그대로 ‘새로운 달’ 이라는 뜻으로 새로운 세상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하는 연구자의 심상을 반영한 달 항아리이다. 사람 사는 이야기에서 벗어나 조금 더 큰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담고자 구상하였다.

기존에 보여 왔던 달 항아리의 기품 있고 고전적인 모습인데 반해 연구자의 달 항아리는 스트라이프 옷을 입은 듯한 느낌으로 선의 굵기와 농담, 강약을 통해 반복된 선의 조형성을 표현하고자 했다.

큰 항아리의 특성상 연구자의 제작 기술을 고려하여 분청토로 물레성형 한 후 분청을 발라 표현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청화안료로 채색 하여 환원소성 하였다.



<작품16> The Special Day, 자기토, 수금, 산화소성, 물레성형, 핀칭, 600×400×300, 2013

<작품16> 은 특별함이 필요한 날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간편한 서양식 테이블 세팅을 표현하였다. 분위기를 빛나게 해줄 장미 센터피스(center-piece)를 비롯해 큰 와인 잔과 샴페인 잔, 독한 술이나 디저트 음료가 담길 수 있는 작은 실버 와인 잔, 요리접시, 음료 주전자, 시럽 볼, 와인 쿨러(cooler), 냅킨 홀더로 구성 하였다.



<작품17>백자 심플라인 브런치 세트(Simple line brunch set), 자기토, 수금, 산화소성, 물레성형,
600×400×300mm, 2014

<작품17>은 즐거운 휴일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브런치 세트를 선의 입체적 표면 장식을 통해 구성해 보았다.

화병과, 큰 볼, 작은 볼, 음료 잔, 케익 스탠드, 높은 굽 접시로 구성 되었으며 선을 입체화 하여 불규칙 하게 반복되는 선에 대한 조형적 재미를 더하였다.



<작품18> New Moon -2, 자기토, 코발트 유, 수금, 산화소성, 300×300×250, 2015

<작품18>은 <작품15>에 이은 시리즈로 우주의 행성을 비롯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통해 표현한 새로운 달 향아리 시리즈이다.

자기토로 물레성형 한 후 코발트 유를 산화 소성하여 수금 선 굵기를 통해 화려한 선들이 빛을 받아 발광 하며 스스로 빛나고자 하는 심상을 표현하였다.

Ⅲ. 결론

본 연구는 선의 조형성에 대한 의미를 고찰 한 후 연구자의 내적 심상이 전개 될 수 있는 선의 표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회전체 제작과 선의 강약 및 면의 분할 등을 시도하였으며, 여기서 도출된 선의 조형적 특성을 모티브로 도자소품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자연물이나 사물들은 선적인 느낌보다 전체적인 형태로서 받아들여지는데 그것은 우리의 시각이 선을 의식하기 이전에 형에 대한 의식이 더 선행되고 강하기 때문이다.⁵⁾ 하지만 이러한 형의 의식도 시각적 표현에 있어서는 선이 우선되고 기본요소가 됨을 작업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장미작업을 통해 전체적인 형을 유지하고 있는 선을 만들고 형 안에 숨겨진 유동적이면서 아름다운 얇은 꽃잎 선을 만들어 내기란 여간 까다로운 작업이 아니었다. 먼저 도자 꽃을 제작하는 해외 유명 도자 브랜드의 꽃 디자인을 참고 하였으며, 생각보다 간략하게 제작됨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는 보다 얇은 꽃잎의 유동적이고 아름다운 곡선을 만들어 내기 위해 1차로 얇은 도판을 만든 후 2차로 손가락으로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얇은 점토성형을 시도했다. 꽃잎의 매끈한 표현을 위해 건조과정중 꽃 선이 부서지지 않게 물 묻은 가는 붓으로 꽃잎 면을 다듬고 꽃잎의 선을 만들어 내야 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다양한 꽃의 형태와 섬세하고 유동적인 꽃 라인은 만들 수 있었지만 얇게 점토판으로 겹쳐져 성형되는 꽃잎 때문에 제작의 소요시간이 길어지고 원형의 기물에 부착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건조과정 중 수축률을 조절하여 부착면의 균열을 방지할 수 있는 연구가 더욱 필요함을 판단할 수 있었다.

선을 긋고 나아가 선의 요철을 위한 휘어짐이 없는 반듯한 회전체의 원형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물레성형과 굽짜기를 할 때 변형을 줄일 수 있는 성형과 건조기술이

5) 강명구, 「디자인센스」, 문연당, 1968, p. 86

필요했으며, 다양한 선의 요철을 새기기 위해 일반 굵 칼 보다는 다양한 단면의 속 파기용 도구를 이용해 요철의 디자인에 맞게 변형하여 작업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선의 입체감을 부각시키도록 의도하였다.

하지만 요철을 새긴 기벽과 새기지 않은 기벽사이의 두께 차이로 인해 생기는 건조과정의 시간 차이로 균열이 발생함을 알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건조시간을 늘려 서서히 건조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청화안료의 선을 그을 때에는 일반적인 청화 안료의 농도로 4회 이하로 회전하여 중첩시킬 때 남색의 선명한 선을 얻어내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회전하면서 중첩되는 청화안료로 인해 소성 시 유약을 뚫고 나올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와 맑은 선을 얻기에 유리하다. 또한 한 가지 안료로 다양한 농담을 표현할 수 있는 선을 그는데 안료의 위의 뜬 물을 이용하면 수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양의 마음과 그림>의 저자 컴바라세이고는 “선의 방향, 굵기, 속도, 무게 이 네 가지 요소를 두루 활용하여 작품을 구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중 어느 하나에 주안점을 두고 그림을 그리느냐보단, 네 가지 모두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할 때 작품의 기운은 참조 될 수 있다.”⁶⁾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의 성질과 요소를 행위자의 감정에 담아 다양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선 작업을 통해 선을 그는데 천착하게 되는 본인의 모습을 통해 어떠한 행위에 천착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내면의 심적 욕구를 예술로 승화 시킬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 그러한 ‘점’이라는 한 가지 요소에 반복적으로 몰입한 작업에 대한 예로 쿠사마 야요이⁷⁾가 본인의 작업에 있어 좋은 예시가 됨을 알 수 있었고 더욱

6) 컴바라세이고 저. 「동양의 마음과 그림」. 새문사,1969 .p.236

7) 야요이 쿠사마 [Yayoi Kusama, 草間彌生(초간미생)]

:일본의 예술가. 자신의 편집적 강박증을 그대로 작업방법으로 연결시킨 그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물방울 무늬를 통해 독특한 자기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하였다. 그의 예술의 매력은 무거운 주제를 껴안는 위트와 유머, 투명하면서도 대담한 시각적 풍요로움에 있다.

쿠사마의 예술은 작가의 편집적 강박증과 그에 따른 환각 증세에 대해 그 자신이 개발한 치료법이라고 말할 수

확장된 선의 조형성의 특성을 살린 도자소품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선 작업의 행위가 회전체 위의 일정한 틀에서 국한되었지만 회전하지 않는 디자인에서 조금 더 자유분방한 선의 조형적 특성을 살린 디자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색채의 도자 소품이 제작 될 수 있도록 추후 연구 하고자 한다.

있다. 동일한 요소나 문양을 끊임없이 반복, 집적, 증식, 확산시켜 자신의 편집증을 그대로 작업방법으로 연결하고 있는 그의 예술은 정신질환적인 편집과 환각증에서 그를 해방시킨 유일한 수단이었고 카타르시스였다. 그의 작품 세계는 크게 물방울과 거울, 풍선이라는 세 아이콘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반복과 확산이라는 명제 속에 끊임 없이 증식을 거듭한다. 증식은 곧 작가의 강박증이며 동시에 소멸이다. 증식이라는 무한의 세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는 사라지는, 즉 '자기망각 self-obliteration'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야요이 쿠사마 [Yayoi Kusama, 草間彌生(초간미생)] (두산백과)

참 고 문 헌

<단행본>

- Wassily Kandinsky. 차봉희 저, 「칸딘스키 예술론Ⅱ :점.선.면 회화적인 요소의 분석을 위하여」, 열화당, 2000, p.47
- 컴바랑세이고 저. 「동양의 마음과 그림」. 새문사, 1969, p.236
- 강명구, 「디자인센스」, 문연당, 1968, p.86
- 질 들뢰즈, 김상환 역 「차이와 반복」, 믿음사, 2004, p.29.

<학위논문>

- 이은미, 「일본 아리타(有田)지역의 청화기법을 이용한 실내도자장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ABSTRACT

Study on Ceramic Props on Formativeness of Line Theme –Focused on Lines of Rotating Body–

YunJu, Bae
Department of Craf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Line, as a formative language, is the element with the potential to express maximal meaning and function with small effort, and its meaning and function are defined as the medium that conveys the form of an object and also the basic act of modeling most broadly used to convey the inner feelings, serving as a visual element. Line is used as the basic language and tool for expressing the emotional artistic world of artists through various methods and became the key element with the unlimited possibilities and potentials among the modeling elements of art today.

This study intended to analyze the meaning of line and its artistic formativeness and prepare the rationale for the author's study of work. The production of the ceramic props reflecting the formativeness of the line in the motive did not limited items used, and it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prop as a craft work.

Line in this study was expressed as the medium for expressing the mental imagery of the author in the moderated form. Line was used as the tool for expressing inner feelings starting from the primary act of drawing the line and was expressed in the form of repeated lines that are sometimes moderated and sometimes boldly embrace the circular mass and divide surfaces between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Contrary to expressing the mental imagery through the act of drawing moderate lines repeatedly on the surface, unrestrained natural lines were expressed by combining the reiterating free curves in the form of contour and flowers with the beauty of flexible lines. This adds tension of formativeness through the combination of restrained lines of the circular form of the rotating body and the free wheeling curves of flowers. The reason the rose blossoms were used as formative elements with lines is that the ample number of petals enabled the reiteration of free curves and the rose has a number of languages that can reflect the mental imagery of the author.

White porcelain and blue pigment were used as the main ingredients in order to express the moderate lines in relation to the sense of color and the gold pigment was used as an ornamental element. As for the shape of the object on which the lines will be drawn, a circular shap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 rotating body was formed to accommodate both straight lines and curves starting from a single point and jiggering and plaster frame were used to facilitate the act of drawing lines when developing the shape. No limits were applied to the production of ceramic props, and a variety of prototypes from dishes to candles, lighting fixtures, vases, and picture frames to try various designs in relation to their use in living in the future.

The author's mental imagery was reflected in the title of the work, which took the form of story telling about the sense of a person's presence.